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읽으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25장 이후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6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6일째 사람을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6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직접 성막 기구를 만들 일꾼으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7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막을 제작하는 것 그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성막을 짓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안식일에 대한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아무리 성막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여도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비해 성막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단지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성막 공사에 한정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성막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만이 성막이 성막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살아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표징이었습니다(31:13).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후 거룩하게 하신 7일째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간은 그 분의 피조물인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31:17).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관계가 성립되게 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31:16).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레11:45).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레20:26).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고 군사력을 키워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올바른 관계의 첫 단계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이고 위험한 광야입니다(신1:19). 그곳에는 불 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기 때문입니다(신8:15).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하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 주 반복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들 그리고 성막과 안식일 등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점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은 더 충격적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맹렬한 불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기 때문입니다(24:17).

32:1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큰 반역을 저지르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제 앞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앞으로도 자신들이 만든 신을 따르겠다는 반역과 배교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실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32:14).

이제 시내산을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의 이 반역의 현장을 확인하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백성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을 모집합니다. 레위 자손이 나아와 그들의 친족 3천명

을 처형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께 헌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들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를 비는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청천벽력 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화이며 저주인지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야 자신들의 범죄의 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 몸에 붙인 어떠한 장식도 다 떼어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백성들의 진으로 돌아가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세우고 백성들은 멀리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서 사람이 친구를 만나 이야기 하는 것처럼 모세를 만나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3번에 걸친 중보기도를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처음 시내산에서 주셨던 약속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을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을 다시 명령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아 산을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의 반역은 이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범죄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만 있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 보면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역사를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범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 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었을 때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여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 인간들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